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SPRING 2020
Vol.52

모자보건 증진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KOFIH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3(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국 보건전략 계획에 기여하고자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Contents

SPRING 2020 Vol.52
www.kofih.org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발행일 2020년 4월 6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기-6-2020-1
발행인 추무진
편집인 최원일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취재·디자인·제작 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SSN 2508-3481

08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6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020 KOFIH PROJECT MAP
KOFIH 주요 사업 현황 지도 04

KOFIH LETTER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또다시 도약하겠습니다 06

기획특집 카드뉴스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KOFIH의 열정과 노력 08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실천 수칙

1. 소프트웨어(백신,OS)는 최신 상태로 유지
2.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3.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
4.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5.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6.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보조저장매체 무단 방치 금지
7. 파기 시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8. P2P 사용 및 공유 설정 금지
9. 공개된 무선망 접속·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세요.

Explore the World / 세계 속의 KOFIH

포토 에세이
사진으로 보는 KOFIH 현장 10

글로벌 리포트
KOFIH와 함께 성장하는 7개의 ODA 협력국 12

글로벌 특파원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0년의 발자취 14

Inside KOFIH / KOFIH 속으로

KOFIH 인사이드
톡톡(Talk Talk)! 어서 와~
KOFIH는 처음이지? 18

현장 다이어리
KOFIH 우간다·캄보디아 사무소,
미래를 바꿀 바탕을 다지다 20

The Way Forward
모자보건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22

KOFIH NEWS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24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KOFIH는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국의 보건전략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ulture for You / KOFIH 문화산책

지구촌을 밝히는 '한국인 슈바이처'
우간다 의사들의 스승 유덕종 교수 30

21세기 신종 감염병 바로 알기
사스보다 최대 1000배 강력한 '코로나19' 32

힐링 꽃피(KOFIH)다!
영화에서 인도주의를 보다 34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6

(단위 : 백만 원)

- 모자보건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
-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 민관 협력사업
- (단위 : 명)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2007~2019)

2020 KOFIH PROJECT MAP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Unit: KRW million)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또다시 도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겨울호에 이어 독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난 연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이를 극복하고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그 기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KOFI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KOFIH는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26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석사학위 과정을 보건학 분야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5~6년 단위 중·장기 프로젝트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동시에 라오스, 미얀마 등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국에서는 산악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단은 기존 8개 사무소에 더해 신규 사무소 2곳을 베트남, 스리랑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재단은 대한민국의 손길이 필요한 협력국에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한 해 한 해 발전된 모습으로 이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KOFIH Letter> 봄호는 재단의 발전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자보건 증진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특집호로 준비했습니다. 재단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3(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국 보건전략계획에 기여하고자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라오스 사업을 필두로 캄보디아, 가나, 에티오피아, 미얀마, 탄자니아, 우간다 등지로 사업은 확대돼왔으며, 이들 국가에서 거버넌스 강화, 서비스 접근성과 질 개선,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집호에서는 우선 수혜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려고 하며, 재단 사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라오스 모자보건 중심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 이종욱'으로 캄보디아와 우간다 사무소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해외사무소 파견자들과 현장의 모습을 담아 여러분께 전하고, 특히 모자보건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과 관련해 오랜 기간 다방면으로 경험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자보건'이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1948년 당시 보건부가 포괄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은 협력국의 모자보건 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개발도상국 스스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0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또다시 도약하고자 하는 KOFIH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KOFIH의 열정과 노력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KOFIH는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국의 보건전략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

저소득층·중산층 국가 여성 및 아동의 위기

전 세계에서 매일 약 810명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그로 말미암은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도
다섯 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unicef.org)

02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임신·출산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모성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려면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빈곤, 의료시설 부족,
열악한 의료 서비스, 숙련된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의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03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어머니와 아이들은 가정, 공동체, 사회, 경제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KOFIH는 협력국 정부와 함께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관리자 및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의료시설 건축 지원, 마을 방문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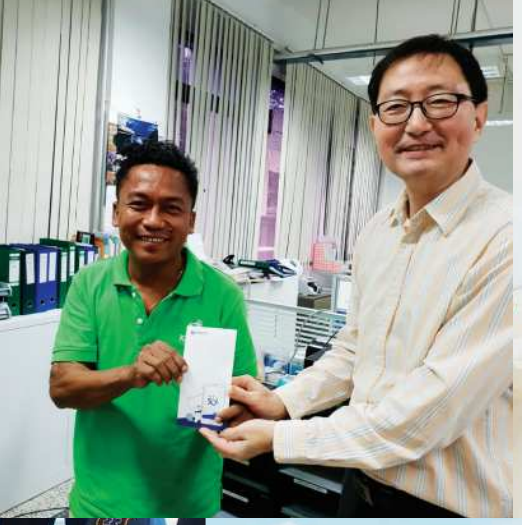
보건 분야 국제 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 구현

KOFIH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개발도상국 스스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 REC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우주를 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들의 표정에선 광활한 바다가 느껴집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KOFIH가 꿈꾸고 실현해가는 세상도 이런 풍경과 닮았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내민 희망의 손길이 이렇듯 큰 사랑과 감동으로 돌아와 세상을 감쌉니다. 이들이 보내주는 환한 미소에 KOFIH의 열정은 커져만 갑니다.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손을 맞잡는 KOFIH의 뜨거운 도전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3 ... 2 ... 1 ... ▮ ... 1 ... 2 ... 3



COMPLETION OF THIS THEATER
BUILDING WAS SUPPORTED BY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2018
KOFIH

더 나은 삶을 위해 맞잡은 희망의 손길

KOFIH와 함께 성장하는 7개의 ODA 협력국

KOFIH는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구촌 곳곳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모자보건 환경과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 인류애에 바탕을 둔 KOFIH의 철학을 방증하는 활동이다. 의료시설과 인력, 보건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변화된 7개 수원국의 모습은 '상생'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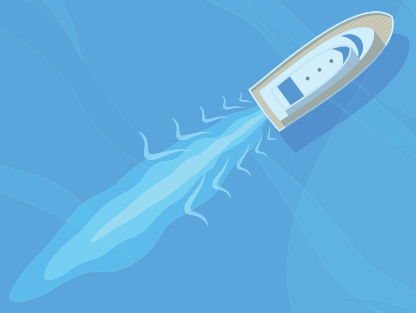
글_ 송준호

아프리카의 엘도라도 가나

15세기 포르투갈의 대항해시대 때부터 유럽에 알려진 가나는 풍부한 금 매장량으로 일찌감치 황금의 나라로 불렸다. 해안지대가 황금해안(Gold Coast)으로 알려지며 유럽 각국의 각축장이 됐다. 아샨티제국이 지금의 황금해안을 따라 세워졌고 이때부터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1957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후 공화국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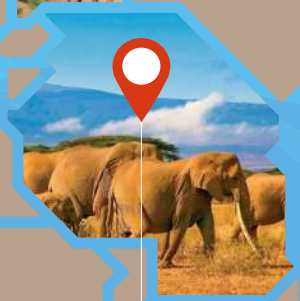
☑ 가나에서 KOFIH는?

아크라와 볼타 및 오티 지역에 모자보건 증진 2차 사업 및 아프리카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한 가나 건강보험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나 보건 분야 정부 관리능력 향상, 보건시설 환경 및 서비스 개선, 의료인력 교육,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가나 보건의료 중기개발계획 이행 지원에 힘쓰고 가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기여 및 아프리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선도 역할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적도에 위치한 우간다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린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이자 나일강의 시작점인 빅토리아호수가 유명하다. 또 초원지대가 광범위하고 사바나가 울창하게 자리 잡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빅토리아호수 연안의 흙이 기름져 커피 수출로도 유명하다.



☑ 우간다에서 KOFIH는?

마사카와 부코만심비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 분야 발전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장비도 지원하고 있다.

평화로운 자연의 탄자니아

1964년 영국령이었던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합병해 성립된 나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세계 최대 규모로 한데 어우러진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비롯해 2만5000여 마리의 동물이 서식하는 '아프리카의 심장' 응고릉고로 칼데라가 이곳에 있다. 또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까지 있어 아프리카 여행의 필수 탐방지로 주목받고 있다.

☑ 탄자니아에서 KOFIH는?

프와니주에서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응급산과 교육과 분만 모니터링 교육 등 기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 주민 대상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커피의 본고장 에티오피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인 에티오피아는 적도 인근에 위치한 곳인데도 1년 내내 온대기후를 유지한다. 덕분에 아비시니아고원에서 풍미가 좋은 커피가 생산돼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이자 본고장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의 종주국으로 6·25전쟁 시 16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으나 한때 공산정권 집권으로 농업 기반 최빈국으로 전락한 역사의 아픔을 딛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에서 KOFIH는?

모자보건 증진사업,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 및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자보건 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보건의료 시설의 환경 개선과 기자재 지원을 지속하고 보건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자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역사의 부침을 겪은 미얀마

한때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은 나라다. 19세기 영국의 식민지가 됐지만 1948년 독립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해 사회주의를 채택한 후 군부 독재와 함께 민주화 항쟁 등을 겪었다.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렸지만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한 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약 90%가 불교 신자인 불교의 나라다.

☑ 미얀마에서 KOFIH는?

양곤주에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 기초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초 보건인력 교육과 훈련시설 개·보수에 적극적이고, 의료 기자재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족해도 행복한 라오스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에 둘러싸인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이다. 19세기에 베트남, 캄보디아와 함께 '인도차이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후 1949년 독립해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여전히 최빈국에 머물러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식과 관광자원을 통해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 라오스에서 KOFIH는?

북동부의 시엥쿠앙, 후아판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건시설의 환경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보건의식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캄보디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드넓게 펼쳐진 평원에서 찬란한 역사를 일궈낸 나라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캄보디아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크메르제국이 동남아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도 했다. 그 황금기의 상징이 바로 앙코르와트다. 이후 식민 지배와 내전으로 고통과 가난을 겪었지만, 국제사회의 원조로 개선이 이뤄지며 안정을 찾고 있다.

☑ 캄보디아에서 KOFIH는?

바탐방, 파일린, 뽀삿의 3개 도에서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조산사 강사와 교육생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정부 관리 능력 향상에도 매진하고 있다.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0년의 발자취

라오스에 뿌린 나눔의 씨앗,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세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인류애의 실현을 꿈꾸는 KOFIH는
2010년 라오스와도 인연을 맺었다. 당시
뿌려진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씨앗은
10년이 흐르는 동안 라오스의 토양에서
조금씩 싹을 틔워왔다.
특히 모성과 아동보건 현황이 열악하던
그곳에서 KOFIH의 활동은
국민 건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근간이 됐다.
이제 한층 건강해진 엄마와 아이들의
미소는 함께 오래 땀흘려온
KOFIH에겐 큰 선물이다.

글_ **송준호**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한도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한 라오스는 한국엔 오랫동안 낯설게 느껴졌던 나라다. 우리나라와는 1974년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이듬해부터 20년간 교류협력이 단절된 까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라오스가 국내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해외 배낭 여행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을 통해서였다. 이후 '배틀 트립'이나 '뭉쳐야 뜬다' 같은 여행 프로그램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라오스는 한국에서 새로운 동남아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KOFIH 사무소 직원들이 처음 만난 당시의 라오스는 그런 휴양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근 수년간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과 친기업적 환경 조성으로 성장세를 타고는 있지만, 2010년 라오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다. 게다가 대다수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설과 인력,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KOFIH는 라오스의 통합 모자보건 증진 국가전략을 근간으로 1차 모자보건 증진사업(2010~2015년)을 펼치기 시작했다.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시행지역인 후아판과 시엥쿠앙은 라오스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모자보건 상황도 특히 열악한 곳이었다. 시설과 장비는 낡을 대로 낡았고, 지역 의료진의 역량 또한 낮은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물리적인 환경이었다. 사업지역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있었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평상시에도 지역주민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우기엔 자동차로도 가지 못하는 곳이 많을 정도였다.

하지만 KOFIH 라오스 사무소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의료시설을 개·보수하고 의료 인력의 교육과 훈련, 마을 방문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관리감독 능력 향상을 통해 거버넌스를 확보해갔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모자보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10년에 걸친 무한도전은 양국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무기로 1차에서 2차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오스와 함께하는 상생의 프로젝트

모자보건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던 후아판과 시엥쿠앙은 KOFIH의 사업 참여 후 조금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이 개선됐다. 특히 시엥쿠앙 지역에서 산전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임신부 비율은 26%에서 50%로,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 비율은 26%에서 42%로, 영아 예방접종률은 45%에서 74%로 증가하는 등 주요 모자보건 지표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개선된 지역에 라오스 보건부가 스스로 기획한 모자보건 바우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자체 역량도 서서히 배양되기 시작했다.

라오스 최북단에 위치한 퐁살리도 지역에 모자 병동을 건축하고 산부인과 관련 통계자료와 보건정보체계 운영 교육을 실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성과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국제기구의 지원이 전무했던 이곳은 라오스 보건부 장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곳이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도 활발해졌고, 특히 모자보건 증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이 높아진 점은 확실한 변화였다. 이런 변화를 통해 모자보건을 포함한 최소한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궁극적으로 모성과 아동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KOFIH로서는 모자보건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국무총리실 공적개발원조(ODA) 종합평가(2013년)에서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은 모범적인 보건의료 ODA 사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라오스 사람들과 함께 국가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와 전략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으로, 한국과 라오스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가 없었다면 실행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KOFIH 사무소는 한국 관계기관과 라오스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사업의 선봉에 선 일등공신이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라오스 보건부와 현지 사무소는 성공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얻게 됐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의 데이터는 해당 사업이 차후 전국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라오스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 같은 국가 전략을 실행했다는 사실은 직원들에게도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신뢰'라는 이름의 거대한 동력

KOFIH가 라오스 보건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년이 라오스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체력 증진에 나설 때다. 실제 사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한국과 라오스 간의 신뢰는 갈수록 두터워졌고, 이는 그대로 라오스의 보건의료 환경을 성장시키는 좋은 토대가 됐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라오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라오스를 찾는 여행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는 라오스에도 큰 인기가 있었다. 시골인 시엥쿠앙과 후아판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확실히 체감될 정도다. 그 변화는 라오스 사무소를 거쳐간 여러 KOFIH 직원들의 태도가 일정 부분 이뤄낸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그 직원들은 모두 다르게 기억되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늘 모든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기어이 해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그런 기억 덕분에 한국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나라가 됐다.

'건강'이란 결국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그 나라와 사람에 맞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지인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함께 바꿔간다는 것이 KOFIH 라오스 사무소 직원들이 말하는 보건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리고 그런 통찰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라오스와 함께 이뤄낼 다음 10년의 변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interview **백주왕** KOFIH 라오스 사무소 소장

"라오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모자보건 증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후아판과 시엥쿠앙은 라오스에서 특히 모자보건 수준이 낮은 지역입니다. 현지 사무소 소장 취임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준의 변화를 누구보다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막 시작할 때 현지 보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약과 장비도 부족하고, 본인은 분만을 돕는 방법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그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는 아직도 부족했지만, 이제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개발도상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엄마와 아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와 아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나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길이 좋지 않고 돈도 없어서 못 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보건소나 병원에 갔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리적·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적절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다양한 사업 계획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이나 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둘러싼 인식과 환경, 의료 인력이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 해당 국가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사업을 통해 교훈을 도출해 그 나라 보건부, 전문가와 공유하는 일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현행 사업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꼽아본다면.

"최근 2~3년간 라오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응급산과 및 초기 필수 신생아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병원 단계에서 개선된 서비스의 질이 마을과 보건소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또 사업지역 내 소수민족과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우리의 도움이 평등하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톡톡(Talk Talk)! 어서 와~ KOFIH는 처음이지?

TALK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올해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모토를 품고 여러 성과가 무르익고 있으며,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모종을 심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할 터. 누구보다 더 깊은 고민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사업의 숲을 일궈가는 KOFIH 직원들을 만나봤다.

글_ **김보미**

박진하 차장(ODA 사업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유쾌상쾌 박 차장
전(前) 아프리카중남미팀, 중점사업추진단, 기획연구팀 근무

박예인 주임(의료시설융합사업TF)

열정진지 궁서체 박쭈
전 ODA사업부 근무

류경남 대리(경영기획부)

소듕한 하루하루, 만능인재 류
전 전략개발부, ODA사업부, 홍보팀 근무

최명균 과장(운영지원부)

인턴부터 지금까지,
KOFIH랑 결혼한 새신랑
개성공단 파견 경험

박소영 주임(경영기획부)

목소리 잃을 정도로 일했던 인어공주
전 민관협력사업부 근무

(단체방에 입장하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KOFIH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을 만나볼 텐데요. KOFIH에서 코피(?) 꽤나 흘려봤다는 정예 5분 모셨습니다. 먼저 KOFIH를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박진하 차장] 방가방가~ 하이루!

[류경남 대리] 😳

[박진하 차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을 줄여 'KOFIH'라고 부르는데요. KOFIH는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기자] 비정부기구(NGO)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박소영 주임]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기업이라는 차이? NGO는 민간 차원의 영역이고, KOFIH의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업무로 의료 컨설팅, 제도·가이드 등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보건의료 향상'에 목적을 둡니다. 특정인과 특정 지역만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중시해요. 잘 설명했나요? 차장님?

[박진하 차장] 굿잡! 역시 홍보요원입니다! KOFIH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큰 틀 아래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달성을 위해 24개국에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박예인 주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특히나 협력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현재 담당하는 탄자니아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은 대표적인 유·무상 연계사업인데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병원을 짓고, KOFIH에서 운영 컨설팅을 하고,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국내 보건의료인력 봉사단을 병원에 파견하죠. 현지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요. 국제무대에서 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다니 어벤저스 같지 않나요?

[기자] 아하,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군요. 사업 중 북한보건의료사업이 있는데, 독자분들도 어떠한 사업

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명균 과장] 저는 2013년부터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될 때까지 병원관리, 식품위생, 방역관리 등 보건위생을 담당했는데요. 개성공단 내에 북측 근로자가 5만3000명, 우리 근로자가 800명이었어요. 가서 보니 남북관계를 떠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말 보건사업이 필요한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간단한 치과 치료를 못 받아 발치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선진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알리는 과제가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류경남 대리] 참, 최 과장님은 개성공단의 장동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박소영 주임] 꺄~~ 장동건이래요~ 고조 평양에 현빈이 있다면, 개성엔 최동건 아니겼슴까.

[최명균 과장] ㅡㅡ; 그게 아니고 ;;

[박예인 주임] 과장님은 갑작스러운 외교 상황으로 개성에서 고립된 적도 있었어요.

[기자] 정말요?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지구 반대편보다 더 가기 어려운 곳이네요.

[최명균 과장] 남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비상 시기가 있었지요. 😩 못내 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개성공단 내에만 방역을 했는데요. 재개된다면 개성시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의 기본이 방역이라서 기본 건강이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유아사업도 활발히 하고 싶어요.

[기자] 우와,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T.T

[류경남 대리] 아무래도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기관이다 보니 책임감은 물론 업무 특성상 깊은 통찰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소명의식이 흐트러지면 업무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박소영 주임] 맞아요. 저는 입사 초기 목소리를 잃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KOFIH의 큰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때가 기억나요. 오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포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도와주신 덕분이었지요. 😘

[박예인 주임] 저도요. 저라는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KOFIH라는 ODA 기관을 통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그들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업무 목표가 있다면 KOFIH 해외사무소 파견 근무를 해보고 싶어요. 현지에서 협력국과 함께 현지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요.

[최명균 과장] 우리 주임님들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제 신입사원 때 같네요. 😀

[기자] 와, 정말 멋져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만의 신조가 있다면요?

[박진하 차장] Dignity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박소영 주임] 영단어 검색 #Dignity 뜻 1.위엄/품위 2.존엄성 3.자존감

[기자] 우왕 센스^^. 어떤 의미로 말씀해주셨는지요?

[박진하 차장]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사업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순간 생각하려 합니다. 😊 타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서도요. 어렵지만 이 임무를 해가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일동] 😭

[기자] 독자분들도 모두 한 번쯤 생각해보실 만한 화두네요. 그럼, '라디오스타'처럼 마무리해볼까요. 나에게 KOFIH란?

[박예인 주임] '손'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손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KOFIH가 행동과 변화의 중요한 매개체인 '손'과 같다고 생각해요.

[최명균 과장]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이 먹어가고 싶어요. 😘

[류경남 대리] 소듕한 직장입니다. 제 개인과 일을 모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박진하 차장] KOFIH? 커피만큼 사랑하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향기가 가득한 현장!

[박소영 주임] 도전의 무대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자]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코피 날(!) 정도로 열정적이고 유쾌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

KOFIH 우간다·캄보디아 사무소, 미래를 바꿀 바탕을 다지다

소중한 작물을 심을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땅의 힘을 길러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스럽게 거름을 주고 그 땅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해외 각지 KOFIH 사무소의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사무소 두 곳의 이야기를 담았다.

글_ **김보미**

우간다 사무소 | 건강한 삶이 보편적인 일상이 되는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꼬박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머나먼 나라, 우간다. 그곳에서 희망의 공을 쏘아 올린 지 올해로 벌써 4년째. KOFIH는 2040년까지 '보편적 건강 보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간다 보건부와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결핵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우간다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보건정책이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체 병원의 5%, 전체 보건소의 25%(2014년 기준)에 불과하고, 국립전원병원인 물라고(Mulago) 병원과 전국 14개 전원병원 중 응급실이 운영되는 곳이 5곳뿐인 우간다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다.

KOFIH는 2017년 11월부터 중앙보건부와 응급의료 서비스 매뉴얼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사카·부코만심비 지역의 전원병원 및 보건소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 전문교육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부코만심비 지역과 마사카 전원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역 병원이 없던 부코만심비에서 부텡가 보건소를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이 있는 보건소로 발전시켰으며, 마사카 전원병원은 2018년 이종욱 펠로우십을 다녀온 의사들의 역량을 결집해 그동안 전무했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 수혜 마을 수 또한 전년도 대비 2018년엔 3%, 2019년엔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간다 내에서 결핵이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3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 또한 KOFIH 우간다 사무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KOFIH는 대한결핵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간다 국립결핵실험실의 결핵 검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전문교육 커리큘럼과 모듈 개발을 지원해 우간다의 결핵관리 역량을 강화해왔다. 특히 결핵 취약지역인 마사카·부코만심비 지역을 대상으로 결핵실험실 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해 매년 결핵 발견율과 결핵치료 성공률을 착실하게 개선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KOFIH는 우간다와 연계해 이웃나라 남수단에서도 국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결핵관리 중점 대상 국가가 9개국에서 16개국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간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결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KOFIH 우간다 사무소는 우간다 내 남수단 아루아(Arua) 지역 난민촌에서 모자보건 증진사업도 진행하면서 모자보건 병동의 기자재를 제공하고 응급산과 환자를 대상으로 수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간다와 남수단을 넘나들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는 KOFIH 우간다 사무소의 시계는 쉴 틈 없이 빠르게 돌아간다. 이는 건강한 삶이 보편적인 일상이 되는 미래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목표했던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힘을 길러온 땅이 단단한 나무를 길러내듯이 말이다.

캄보디아 사무소 |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누구나 두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KOFIH의 꿈은 캄보디아에서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고 있다. 캄보디아 바탐방(Battambang) 도에서 5년간 진행한 1차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바탐방 도를 포함, 서부 지역 2개 도(파일린, 뽀삿)까지 지역을 넓혀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도전의 연속이었던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OFIH 캄보디아 사무소는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엄마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시작된 캄보디아의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부 산하 조산사양성센터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 코칭과 특별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병원 내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해 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필수 훈련을 제공한다. 더불어 사망률이 높은 5세 미만 아동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무료로 공급하고 영양실조 아동을 추적 관리하며, 백신 처방을 비롯한 외래 방문 시의 다양한 임상 활동을 지원한다.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시너지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다. 모자보건 및 다양한 보건 이슈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마을 보건포럼을 열고,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해 음식 재료 선정 및 요리 방법을 교육하는 요리 실습을 시행하며, 마을 내에서 산모를 지지하는 그룹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보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모두와 함께했기에 오래 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다. 분기별로 주요 보건지표 검토, 활동 현황 파악, 향후 계획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앙 보건부 및 도 보건국,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모성 사망 주요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 분석 워크숍을 진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다. 2차 사업 기초선 조사 때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캄보디아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이행한 것도 정교한 코칭을 가능하게 했다.

쉼 없이 10년을 달려온 KOFIH 캄보디아 사무소는 2020년에도 여전히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캄보디아 여성들이 더 이상 출산 중 사망하지 않을 때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달리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K

모자보건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글_ **손명세**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원장

대한민국은 6·25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가장 많이 받는 수원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최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매우 특별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보건의료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국제적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에 발맞춰 보건의료 분야 ODA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가 그동안 펼쳐온 지원 경험과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 특히 모자보건과 1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해당국의 니즈에 맞는 보건의료분야 ODA 수행해야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70년 남짓한 기간에 많은 단기간의 노력과 비용을 쏟아 좋은 건강 관련 지표를 가지게 됐다. 건강지표 중 특히 모성 건강과 관련해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임신과 관련한 산전 검진율, 피임 실천 비율 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러한 지표의 감소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 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산전·산후 건강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생식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등 1차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1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1차 보건의료인력의 질이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활용을 통한 모성 건강을 위한 가족계획의 수립과 확대,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사각지대의 감소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ODA의 관점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철저히 해당 국가의 니즈(Needs)에 맞춰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진행해야 한다. 점차 그 성격과 방향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간에 진행됐던 모자보건과 1차 보건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ODA는 2000년대 초반까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기본적인 치료 및 의약품 등의 지급과 활용, 긴급구호 활동, 의료시설 건축사업 등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과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교재 개발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ODA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담당인력 양성·훈련도 전문적인 ODA 기관 통해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거나 교육하는 현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인력 파견을 통한 협력 등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운영에 대해 현지 시민사회와 대외원조 관련 정부부처, 공여국의 지원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전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구체적으로 수원국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과 인력의 선진적인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정교하게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1차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력과 시설의 운용을 통해 모자보건의 긍정적 효과 달성이라는 부분을 단기간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면 대한민국과 수원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의 지원,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일원화된 기초조사와 요구사정(Need Assessement)을 통해 수원국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시설의 확충과 건립사업을 여전히 많은 부처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히 1차 보건의료체계와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과 함께 인력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함께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진료와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이 전문적인 ODA 기관을 통해 일원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사업의 방향성을 갖추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20 KOFIH의 도전과 열정

우간다

르완다

아프리카 지역 민관 협력사업 모니터링 출장

KOFIH는 2018년 기획한 민관 협력사업 최종 점검을 위해 우간다와 르완다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먼저 우간다에서는 실명 예방을 위한 안(眼)보건 서비스 강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KOFIH 우간다 사무소와 베데스다병원 등을 방문했다. 또 주(駐)우간다 한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모자보건 영양 증진 개선을 목표로 했던 르완다에서는 아동 성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 보건요원 교육, 보건소 건축,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사업 지역인 무니기냐 섹터의 3개 보건시설과 2개 마을을 방문해 모자보건 증진과 관련한 세부 활동을 점검하고 영양 개선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우간다의 수행기관인 비전케어는 단시간 내 안검진 서비스와 백내장 수술을 1만4514명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웃리치 보건소와 병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르완다의 수행기관인 더멋진세상은 중·장기적으로 무니기냐 지역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짧은 기간에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종욱펠로우십 임상과정 수료식 개최

2019년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과정(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수료식이 지난 2월 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은 운영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탄자니아의 현업 적용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구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연수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탄자니아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베르베키나 타야나 연수생은 "우즈베키스탄 내 조직학 진단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배경으로 국가 기준을 만들고, 암 진단 같은 다양한 병리학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탄자니아의 옹고마 마티아스 페트로 연수생은 "현재 3단계로 구성돼 있는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전담 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분류 원칙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엔 우즈베키스탄 연수생 3명과 탄자니아 연수생 6명 등 총 9명을 비롯해 재단 임직원, 위탁기관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제12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수상자 선정

제12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수상자로 브라질과 탄자니아 후보가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공공보건에 대한 기여도, 이종욱 사무총장의 정신,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두 후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브라질의 호아오 아프리지오 구에르다 데 알메이다 박사는 모유은행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유 수유에 혜택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공공보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탄자니아의 줄리에 마카니 교수는 탄자니아 2대 주요 질병인 겸상적혈구병(SCD) 해결을 위해 5000여 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겸상적혈구병 프로그램(SPC)을 수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 최초로 SCD 유전 연구를 실시했고 가나와 나이지리아 3개 국가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제 보건의료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은 WHO와 KOFIH가 2008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그의 값진 열정과 공헌을 기리고 있다. 공공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은 매년 5월 세계보건회의 총회 기간에 수여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수출입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월 18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보건 분야 사업 발굴·시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상호 연계 추진 △효과적인 유·무상 연계모델 개발 △정례 협의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제까지 7개국 13개 사업에서 협력해온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발굴, 공동 심사, 공동 평가, 공동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우리나라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개도국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국의 개발계획 수립과 이행, 보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무상 연계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효과적인 연계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KOFIH 내 의료시설 융합사업TF 조직 신설

KOFIH가 의료시설 융합사업 전담팀(TF)을 신설한다. 글로벌개발협력본부 내에 새로 구성되는 의료시설 융합사업 전담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병원 건립 및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을 발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담팀은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전략적 업무 협의를 바탕으로 병원 건립과 운영 관련 주요 인력의 역량 강화와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기(旣)지원 의료기기 사후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시설 융합사업 전담팀 신설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때 KOFIH의 강점과 연계사업의 발굴을 통해 향후 먹거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KOFIH는 의료기기 전문 관리인력 6명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 양주시에 '의료기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향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된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해 2020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한국인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하 '한·베트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한·베트남 자녀 건강검진과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한·베트남 자녀 보호자를 위한 '자녀 돌봄'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통해 베트남 현지 '코쿤 껀터(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수혜 대상은 베트남 남서부 지역(껀터시 및 인근 12개 성)의 한·베트남 자녀와 베트남 귀환결혼이주여성 등 한·베트남 자녀의 보호자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연맹[1]'과 '인민위원회[2]' 정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91명의 한·베트남 자녀가 건강검진을, 39명이 67회의 치료 서비스를 받았다. 또 '자녀 돌봄' 건강정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베트남 귀환여성 등 한·베트남 자녀 보호자를 대상으로 76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 벌인 활동 외에 조사원이 한·베트남 자녀의 가정방문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해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의 건강검진도 추가해 한·베트남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건강을 체크하는 일도 병행한다. 아울러 한·베트남 자녀 교육을 추가해 건강한 생활·식습관에 대한 인식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

1) 베트남 공산당 소속 사회정치조직으로 여성 평등·권익 보호 및 국제결혼 업무 주무기관
2) 베트남 최고 집행기관으로 보건청, 외무청, 기획투자청, 노동사회보훈청 등이 포함된 정부기관

우간다 의사들의 스승 유덕종 교수를 만나다

23년 동안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내며 '우간다 의사들의 스승'이 된 한국인 교수가 있다. 1992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1기 정부파견의사로 우간다에 파견돼 마케레레대 의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국립후송병원인 물라고 병원에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와 결핵·열대병 환자들을 진료해온 유덕종 교수. 인생의 절반을 아프리카와 함께해온 그의 뜨거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글_ **김보미**

1992년, 오랜 꿈을 위해 우간다로 떠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던 1991년의 어느 날.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의 한 청년 의사는 그해 창설된 코이카의 아프리카 정부파견의사 1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유덕종, 그에게 10대 시절부터 막연하게 간직해왔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고등학생 시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생각할 때였죠."

아무리 오랜 꿈이라지만, 꿈을 위해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얻은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그가 떠날 곳은 1990년대 초반엔 세계 최고의 에이즈 유병률로 널리 알려진 우간다였다. 아들이 고생길이 훤한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니 아버님도 처음엔 매우 힘들어하셨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난 후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지만요."

그렇게 1992년 6월 마침내 유덕종 교수는 긴 비행 끝에 우간다에 도착했다. "우간다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과거 자신의 고국을 떠나 어려운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서구 의료선교사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간다의 상황은 훨씬 열악했다. 1986년 현 정권이 집권했지만 1992년 당시까지도 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밤마다 총소리가 들려왔고, 거리의 상점엔 물건이 없어 물건이 들어왔다는 소문만 돌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줄을 설 정도였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보건의료 상황. 그가 일했던 물라고 병원은 우간다 최종 후송병원임에도 기본적인 항생제와 인슐린조차 없을 때

가 많아 병원 내 사망률이 무척 높았다. 특히 에이즈 환자 수는 압도적이었다. 물라고 병원 입원 환자의 70% 이상이 에이즈 환자였고,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들에게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34%가 양성이었을 정도. 열악한 병원 상황은 의사로서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한국이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처음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오고 싶었죠." 1995년경엔 쌓인 스트레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제가 그곳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회의가 들었어요. 그 좌절감 때문에 의사로서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의대생 교육에만 매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감동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늘 곁을 지켜주었던 가족도 유 교수에겐 큰 힘이었다. 그가 우간다로 먼저 떠날 때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 함께 길을 나서지는 못했지만, 결혼 전부터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 대한 열망을 알고 있었던 부인은 언제나 그의 꿈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고. 우간다에서 그런 가족을 잃을 뻔했던 경험은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첫째 딸이 뇌수막염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경련을 하고 호흡이 나빠졌는데 물라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집에서 치료했죠. 침실이 중환자실이 되어 아이가 경련할 때마다 직접 항경련제를 주사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전된 날은 모기장 안에 촛불을 켜놓고 돌봤지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딸은 살아났고, 유 교수는 우간다 현지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가르치기 대신 이해하기, 그렇게 친구가 되다

우간다에서 23년. 유 교수는 길을 걷다가 아이들이 "무중구(외국인이라는 뜻)"라고 지칭할 때에야 비로소 '아, 내가 외국인이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 푹 빠져 있었다. 인종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속으로 그는 어떻게 스며들 수 있었을까. "처음엔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죠.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과 친구가 됐을 때 피부색이나 이질적인 문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마케레레대 의대에서 가르친 수천 명의 제자 중에서도 오모딩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유 교수를 존경해 그와 같은 내과의를 꿈꾸던 오모딩은 미국 워싱턴대학에 유학한 후 돌아와 현재

우간다에서 가장 능력 있는 종양학 의사가 됐다고.

수많은 환자 중에서는 '레네'라는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우간다 남서부의 카세세라는 곳에서 특이한 진균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로 물라고 병원에 후송돼왔던 그에게 유 교수는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 병을 확진한 후 비싼 치료약을 사주었다. 다행히 완치돼 그의 가족들이 무척 감사해했고, 우간다를 떠나올 때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16년, 23년 동안 정들었던 우간다를 떠난 그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로서 의료 봉사와 현지 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통구조가 열려 있어 돈만 있으면 의약품이나 장비들을 구할 수 있는 우간다와 달리 에티오피아는 규제가 심해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꼭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에티오피아에 없는 것이 많고, 수입되는 의약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환자들이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현장을 모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이 어디에서나 문제가 된다"고 일침을 놓는 유 교수. 그럼에도, 아니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의료인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02년 우간다 캄팔라에 설립한 베데스다 클리닉을 열대병연구소, 의과대학으로까지 키워내 현지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현재진행형 꿈이다.

만약 서른셋의 나이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실한 "Yes!"다. 왜일까.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선명한 꿈을 따라간 아프리카에서 자신을 마음껏 성장시키는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그에게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울 수 있었다. K

사스보다 최대 1000배 강력한 '코로나19'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여태 인류가 만나보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나타났다. 사스와 메르스와 닮은 이 바이러스는 역시 박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보다 전파력이 강한 탓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3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 건물 앞에서 방역당국이 승차진료(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글_ **이정아** 동아사이언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2월 '앞으로 세계 대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악명 높은 에볼라바이러스와 지카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등이 꼽혔다. 리스트의 맨 마지막은 여태껏 나타난 적이 없었던 '질병 X'였다.

WHO 연구팀은 신종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질병 X라 이름 붙였다. 원래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거나, 동물에게 돌던 바이러스가 변이해 인간에게 전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질병 X의 첫 번째 주인공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이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등 203개국에서 51만4138명이 감염되고 2만3255명이 숨졌다. 국내에서도 3월 27일 기준 9332명이 감염되고 그중 139명이 숨졌다.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한 종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변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를 사람을 감염시키는 7번째 코로나바이러스로 등재했다.

대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등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그래서 감염자와 2m 이내 근거리에 있을 때 감염되기 쉽다. 감염자 대부분은 고열이나 기침, 재채기,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고령이나 당뇨병, 고혈압, 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폐렴이나 폐 섬유화 같은 위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WHO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5~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2~3%로 보고 있다.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바이러스 중 대부분(4종)은 기침이나 콧물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낸다. 사스바이러스와 메르스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나타난 신종이다. 코로나19 역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정보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이 89.1%나 됐다. 사스바이러스와는 77.5%, 메르스바이러스와는 50%만큼 가깝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 그치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유사성이 40% 안팎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 뱀이나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에게 감염됐다가 사람에게 코로나19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이즈, 에볼라와 닮아 전파력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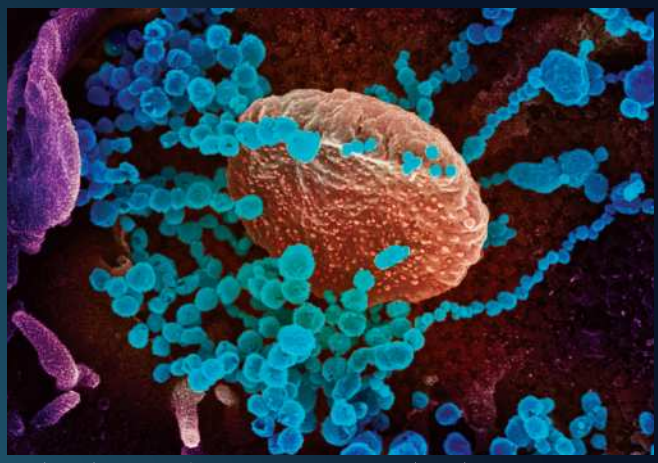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최근 들어 신종 바이러스가 많아진 이유로 '산업활동으로 말미암은 생태계 파괴' 또는 '기후변화'를 꼽는다.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과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동물 사이에 돌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다(인수공통감염병). '생화학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변종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 위험도 예측됐다.

실제로 코로나19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이런 의혹에 불을 붙이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반박이 번갈아 등장하고 있다.

인도 델리대와 인도공대 연구팀은 1월 말, 코로나19의 유전체를 분석해 일부가 에이즈바이러스(HIV)와 닮았다는 논문을 공개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한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은연중에 인위적인 유전자 재조합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학계 반응은 싸늘했다. HIV와 공통된다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잦으므로 서로 다른 두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섞이는 일은 자연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인도 연구팀은 2월 초 논문을 자진 철회했다.

2월 말에는 중국 난카이대 연구팀이 코로나19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HIV, 에볼라바이러스와 닮은 부분이 있어 전파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논문을 냈다. 이 때문에 사스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많이 닮았음에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출처 NIAID—RML

세포(붉은색) 내에서 증식한 뒤 바깥으로 나오는 코로나19(파란색).

100~1000배나 강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을 것… 또 다른 코로나 대비해야

첫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규 감염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더 많아져 점점 완화하고 있다는 기대를 준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앞날을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류가 대개 기온이 높아지면 힘을 잃기 때문에 여름에는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추후 변화를 알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마크 립시치 미국 하버드대 면역학및전염병역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40~70%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이 떨어져 점차 계절성 감염병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추후에도 계절성 감기처럼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벼운 증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가 그리 쉽게 계절성 감염병으로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종 바이러스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절성으로 변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단순 감기로만 생각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변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2~2003년 중국과 홍콩에서 사스가 나타났고,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났다.

이처럼 수 년 뒤에도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의 성질을 간파하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영화에서 인도주의를 보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을까. 오랜 내전으로 피와 눈물로 얼룩져버린 아프리카 남수단, 끊이지 않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오지 마을. 그 열악한 상황의 이역(異域) 땅에서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들의 삶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삶의 해답을 찾아보자.

글_ **김보미**

울지마 톤즈
남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를 만나다

장르 다큐멘터리
개봉 2010년 9월
감독 구수환
출연 이태석(본인), 이금희(내레이션)

2010년 2월, 아프리카 수단 남쪽의 작은 마을 톤즈(Toni). 남수단의 자랑인 톤즈 브라스 밴드가 마을을 행진한다.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슬픈 얼굴로 눈물을 훔친다. 그들의 시선은 밴드 선두에 선 소년이 들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향해 있다. 사진 속 활짝 웃는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톤즈의 아버지였던 고(故) 이태석 신부다.

그는 10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아홉 번째로 태어나 어려움 속에서도 총명함을 잃지 않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다시 신학대에 진학해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2001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곧장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내전이 심한 남수단 톤즈로 향한다.

남과 북으로 나뉜 수단의 오랜 내전 속에서 톤즈 마을 사람들의 삶은 분노와 증오,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때때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의사로서의 역할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희망을 잃은 아이들을 모아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해 작곡도 섭렵하며 모든 악기를 스스로 배운 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악기를 배워가면서 차츰차츰 웃음을 찾아갔고 톤즈 브라스 밴드는 정부 공식 행사에도 초청받을 만큼 크게 성장했다. 아이들의 손에 총 대신 악기가 쥐어지며, 음악이라는 강력한 치유제로 마을은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선교사, 선생님, 의사, 음악가, 건축가 그리고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 10여 년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2010년 1월 대장암으로 선종한다. 향년 48세. 대한민국 정부는 이태석 신부의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높이 사 2011년 제1회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적당히 이타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울지마 톤즈'를 통해 이태석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아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울지마 톤즈 2 : 슈크란 바바

이태석 선종 10년 후의 편지,
그가 돌아왔다!

장르 다큐멘터리 | 개봉 2020년 1월 | 감독 강성옥
| 출연 이태석(본인), 이금희(내레이션)

10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울지마 톤즈 2 : 슈크란 바바' 속에서 말이다.

영화는 2001년 이태석 신부의 사제 서품식으로 시작한다. 경건하면서도 설레는 얼굴, 조금은 긴장한 이태석 신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부제가 눈에 띈다. 슈크란 바바. 아랍어로 뜻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력 충돌을 빚었던 남수단과 북수단이 2005년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기념해 이태석 신부가 작사·작곡한 노래의 제목이다.

39세의 사제는 30여 년간 수단에서 활동한 한 신부가 전한 '수단은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을 가슴에 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남수단으로 향한다. 톤즈에서 흙담을 쌓고 짚으로 지붕을 엮어 진료소를 세웠다. 환자 진료를 하며 우물을 파고 농경지를 일궜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 희생과 봉사를 하다 4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울지마 톤즈 2'를 보고 난 뒤에도 그가 그립

다면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 가보길 추천한다. 2010년 1월 14일, 그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부산 서구에서 개관한 '톤즈 빌리지'에서 그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영화는 묻는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기적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도입부는 들판을 뒤덮은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온갖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필리핀 아이들,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빈민가의 모습으로 시작부터 충격을 안겨준다. 그러한 가운데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어 안타까운 죽음이 일상이 돼버린 필리핀 오지 마을에 이방인 의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버스 한 대로 30여 년 동안 필리핀 오지 마을을 다니며 의료 봉사를 이어간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누가 선교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시한부 선고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 우선이었던 그의 휴먼 다큐멘터리다.

필리핀의 의료 현실을 목격한 그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등지를 돌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현지인들과 굶주리고 아픈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영화는 필리핀에서의 의료 봉사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1989년부터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며 버스 한 대로 필리핀 내 50개의 오지 마을을 찾아간다.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1992년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 수술을 받은 뒤 위암 말기, 간경화, 당뇨 판정을 받았다. 물 부족 국가에서 물 대신 탄산음료를 주로 마신 것이 원인이 됐다. 2016년엔 위암까지 재발했다. 자신의 육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로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였던 그는 사랑을 실천하다 2018년 세상을 떠났다.

사랑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 '아픈 만큼 사랑한다.' 연령을 불문하고 마음에 큰 울림을 전한다. Ⓚ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박누가 선교사

장르 다큐멘터리 | 개봉 2019년 4월 | 감독 임준현
| 출연 박누가(본인), 김주희, 김정욱, 이규석,
추상미(내레이션) 외

2019년 〈KOFIH Letter〉 겨울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최용범(경기 하남시)
모든 기사가 훌륭했지만 그중에서도 '닮은 듯 다른 동서양의 맛, 新실크로드 미식 기행'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맛을 골고루 맛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KOFIH Letter〉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문화면과 독자들의 참여 공간을 늘려 지금보다 더 친근한 〈KOFIH Letter〉가 됐으면 합니다.

강신정(인천 남동구)
요즘은 예전처럼 훈훈한 이웃 사랑을 그다지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못 챙겼습니다. 이번 호 '아름다운 동행' 코너를 통해 KOFIH가 함께한 외국인 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사연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봉사와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겠습니다.

안동원(인천 부평구)
사할린에서 전한 KOFIH의 포근한 울림을 소개한 커버스토리 '최선의 마음과 최상의 가치로 재외동포 어르신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KOFIH가 든든한 벗이자 울타리가 돼준다니 참 값진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KOFIH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최혜숙(서울 구로구)
열악한 환경 탓으로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생명들을 위해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KOFIH가 큰 힘이 돼주는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선진 의료 혜택으로 많은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쓰는 KOFIH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설인아(전남 여수시)
지구촌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는 KOFIH의 활동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 모두가 이웃으로 서로 어울리고 상생하는 모습에 저 또한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KOFIH 관련 뉴스와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며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FIH Letter〉 겨울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신정(인천 남동구)
김정분(인천 부평구)
설인아(전남 여수시)
송나영(경남 밀양시)
안동원(인천 부평구)
유준상(강원 원주시)
이재호(경기 부천시)
최용범(경기 하남시)
최혜숙(서울 구로구)
홍경석(대전 서구)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 706호
㈜코리아프린테크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센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수칙

01.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02. 기침할 땐 옷소매로

03.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04. 예방접종 받기

05.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발행일 2019.11.5.

똑똑한 리빙라이프

- 스마트한 에너지소비 편 -

1 태양광, 태양열 등을 활용한 난방, 온수전력 대체

2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대비
약 30~40%
에너지 절감

3 고효율 LED 조명 사용하기

24형(월 300KWh 사용) 가정에서
전체 조명(17개)을 LED로 교체 시
연간 **92,630**원 절감

4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소비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대기전력 스마트 플러그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5 보일러 청소하기

보일러 청소하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어 난방비
10% 절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키를 재는 한 캄보디아 어린이가 눈길을 잡아끄네요.
지난 계절을 떠나보내는 동안 얼마나 더 자랐을까요?
문득 올봄을 맞아 KOFIH의 키도 새삼 재보고 싶어집니다.
지구촌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눈높이 ODA는 계속됩니다.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